

환경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조 항**

초록 이 논문은 인류세의 기후·생태 위기 속에서 인문학은 어떤 도전을 받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왜 ‘환경인문학’과 같은 개념이 필요한가 등을 핵심 질문으로 하여, 환경인문학의 개념과 간략한 역사, 주요 쟁점과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철학과 생태환경사, 생태비평 등은 한국에서 여전히 주변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연구되면서 점차 확산하고 확립되어 왔다. 이제 이런 방향의 여러 흐름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문은 ‘환경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존재해 왔고 또 현재 행해지고 있는 많은 연구, 교류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 흐름을 더 심화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환경인문학은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져 가고 있으나, 이는 생태적 위기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전 지구적 기후·생태 위기라는 시대적 도전 속에서 환경운동의 영향으로 등장한 이 새로운 연구 분야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시간의 선을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학제적 성격, 경계 넘기, 느슨한 연결과 실험 정신, 메타학문적 특징, 개입과 참여 지향 등을 핵심적인 특성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환경인문학은 기후·생태 위기의 과학적 측면을 인간화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을 탈중심화하기 위해 요청된다. 이 논문은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을 통해 전통과 변화, 연속성과 새로움, 특정 학문 분야 고유의 성격과 학제적 성격, 인간화와 탈인간화, 건설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기후·생태 위기의 긴급성과 ‘느린 학문’, ‘생태적’ 측면과 ‘사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이 논문은 2025년 11월 14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하고 인문대학 환경인문학 리딩 그룹이 주최한 제1회 환경인문학 학술대회 “환경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의미, 가치, 서사”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부교수

회적’ 측면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환경인문학의 다면적인 성격을 조명하며, 서구 중심성을 벗어나 지역적이고 상황적인 환경인문학을 만들어 갈 과제도 제기한다.

인류세의 “새로운 인간 조건” 아래 등장하게 된 이 학제적 장에서는 기존 지식의 재사유, 재상상, 재정의, 재배치, 재조직화, 다시 이야기하기가 요청되며, 지식 전달이나 소통, 교육의 새로운 방식 역시 필요하다. 여러 긴장과 모순, 다양성 속의 환경인문학은 기후·생태 위기의 사회적·인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필수 불가결하며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전망한다.

주제어 환경인문학, 인류세, 학제성, 트랜스학문성, 메타학문, 새로운 인간 조건, 재사유

1. 들어가며

기후·생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심각성을 느끼고 인지하는 것과 이것이 요청하는 사회 전반의 “생태적 전환”(최재천) 또는 “사회생태전환”(조효제)의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하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먼 거리가 존재하는 것 같다.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비해 전환은 빨리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조할 때 오히려 위기는 훨씬 가속화하고 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그레타 툰베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배출된 이산화탄소 총량의 50퍼센트 이상이 IPCC가 설립된 이후에,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지구정상회의 이후에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¹

지금 필요한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전환이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와 강도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 그레타 툰베리(2023), 이순희 옮김, 『기후 책』, 파주: 김영사, pp. 42~43.

첫 번째로,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 같은 문제는 우리의 인식 체계 안에서 파악하고 실감하기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인지적 문제를 갖는다. 롭 닉슨(Rob Nixon)의 ‘느린 폭력’(slow violence)이나 티머시 모턴(Timothy Morton)의 ‘하이퍼오브젝트’(hyperobject) 같은 개념들이 말해 주듯이, 생태적인 문제들은 엄청난 시간과 공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의 인지 능력과 상상력을 벗어나기 때문이다.² 니마니스 등은 “환경에 대해 사고할 때 많은 학자와 일반 시민이 직면하는 장애물 중 하나”로 “규모의 문제”(the issue of scale)³를 든다. 즉 모든 몸은 “고유한 시간성과 공간적 연장”을 가지는데, 인간, 그중에서도 특히 서구 우주론에 뿌리 박은 인간은 지배적인 상상, 관행, 정치적 활동을 인간 규모의 존재를 중심으로 조직하며, 따라서 주로 다른 규모에서 감지되는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⁴ 이렇게 “손으로 만져 파악할 수 없음”(intangibility)은 “소외”(alienation)를 초래하며, 이 둘은 대중이 정치 영역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사회적·사적 영역에서의 시민 참여와 태도 및 행동 변화와 연결되지 않게 한다.⁵ 이 “인식과 느낌의 간극”에 대해 작가 조너선 사프란 포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 지구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마치 **저 멀리**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비슷하다. 우리는 실존을 뒤흔드는 위기와 그 위급함을 인식하지만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알고 있을 때조차도 거기에 온전히 몰두하지는 못한다.”⁶ 니마니스 등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은 환

2 조 향(2024), 「왜 인류세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엮음,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를 말하다』,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p. 302.

3 Astrida Neimanis Cecilia Åsberg and Johan Hedrén (2015), “Four Problems, Four Directions for Environmental Humanities: Toward Critical Posthumanities for the Anthropocene”, *Ethics and the Environment* 20 (1), p. 73.

4 Neimanis et al. (2015), p. 73.

5 Neimanis et al. (2015), p. 74.

6 조너선 사프란 포어(2020), 송은주 옮김, 『우리가 날씨다: 아침식사로 지구 구하기』, 서울: 민음사, p. 23. 이어서 그는 덧붙인다. “마치 우리 행성의 파괴가 남의 일이라는 듯 굴면서 ‘환경’ 위기를 피부로 느낄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면, 모두가 매달려도 더는 문제를

경 문제에 기술관료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프레이밍하고 축소하는 탈정치화 경향과 결합한다. 이로 인해 “다른 누군가의 문제”(someone else's problem)로 여겨지는 기후·생태 위기와 관련된 사안은 그 심각성과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핵심 의제가 되지 못하며,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종, 성별, 계급 등과 관련된 환경정의 문제 역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⁷

두 번째로,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과 같은 주제에 관한 자연과학적·통계적 연구는 많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움직이고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과학적 연구, 통계적 자료들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설령 객관적 ‘사실’을 안다고 반드시 마음이 움직이거나 행동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관심을 끌기 어렵다. 또한 기후 위기, 생물다양성 상실과 같은 문제들은 너무 무겁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 부인, 절망 등의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문제 자체를 부인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무력감, 비관주의, 냉소주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⁸ 이와 같은 “현대판 기후종말론의 본질”⁹에 대해 조효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기후위기의 시간적 지평이 비교적 길다 보니, 파국이 올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당장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 만일 사람들이 인간 사회의 지속성에 대한 믿음을 포

해결할 수 없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p. 23)

7 Neimanis et al. (2015), p. 75.

8 조 향(2024), p. 302.

9 조효제(2020), 『탄소 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파주: 21세기북스, p. 310.

기하고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종말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살아생전의 욕구 충족에만 몰두한다면, 그런 상태 자체가 곧 인간 ‘사회’의 종언을 의미할 것이다. 문명의 붕괴란, 문명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겉에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기대에 기반한 인간 ‘사회’가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가 사라진 상태를 뜻할 것이기 때문이다.¹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환과 대안적 삶에 대한 많은 이론과 실천을 만들어 왔으며 그 흐름 역시 점점 확대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캐럴린 머천트(Carolyn Merchant)가 역설하는 “생태혁명” 또는 지속가능성 혁명, 토머스 베리의 “우주 이야기”와 생태대, 지구법학과 비인간의 권리, 자연계약, 회복력, 탈성장, 커먼즈, 생태농업, 롭 흙킨스의 전환마을, 부엔 비비르, 수막 카우사이, 플루리버스, 에코페미니즘, 생태마르크스주의, 대안경제, 연대적 생활양식, 사회생태 전환, 재야생화, 공생공락, 기후돌봄, 돌봄기본사회, 생태헌법, 기후소송, 기후협치 등 다양하다.

지금, 인류세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시기로 보인다. 인류세의 어둠과 탈인류세의 흐름이, 지속불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의 해체 또는 지속가능성 혁명이, 동시에 존재하며 교차한다.

이 시기에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이러한 시대적 도전은 인문학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더 나아가 인문학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을까?

『인류세의 인문학』에서 캐럴린 머천트는 인류세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의 지구가 미래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

10 조효제(2020), p. 311.

사한다고 하면서, 인류세 시대에 자연을 다시 생각해 보는 일에는 과학뿐 아니라 인문학 자체를 새로 개념화하는 작업을 요구한다는 심대한 함축이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대기오염, 수질오염은 역사, 예술, 문학, 종교, 철학, 윤리와 정의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고 있을까? 기후변화와 더불어,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관한 생각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인류세 시대, 인류와 인문학에게 어떤 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¹¹ 역사학자 디페시 차크라바르티는 「역사의 기후: 네 가지 테제」에서, 인간이 지구시스템을 변화시킬 정도의 강력한 지질학적인 힘으로 등장한 ‘인류세’에서는 기존의 역사학이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였다. 인간이 기후변화를 유발했다는 설명은 자연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는 인문학의 오랜 바탕을 무너뜨리며, 인류의 자유가 확대되고 발전되는 과정으로 바라본 근대성의 역사 역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²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 위기와 인류세 담론은 기존 인문학에 하나의 새로운 연구 영역이나 관심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존 학문의 (특히 인간중심적) 기본 전제를 재검토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성격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인식은 줄리아 애드니 토머스 등의 다음 문장에 잘 나타나 있다. “인간의 의미를 묻는 존재론적 질문은 이제 행성에 미친 인간 영향의 총합으로서의 안트로포스를 무시하고는 답할 수 없게 되었다. [...] 종교학자 리사 사이더리스가 말했듯이, 인류세 시대에는 어떤 학문 분야도 단독으로 인간다움의 의미를 정의할 수 없다.”¹³

11 캐럴린 머천트(2022), 우석영 옮김, 『인류세의 인문학: 기후변화 시대에서 지속가능성의 시대로』, 서울: 동아사이, p. 9.

12 디페시 차크라바르티(2010), 김용우 옮김, 「역사의 기후: 네 가지 테제」, 조지형·김용우 엮음, 『지구사의 도전: 어떻게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설 것인가』, 서울: 서해문집, pp. 364-371.

13 줄리아 애드니 토머스·마크 윌리엄스·안 잘라시에비치(2024), 박범순·김용진 옮김, 『인류세 책: 행성적 위기의 다면적 시선』, 서울: 이음, p. 307.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인문학’(Environmental Humanities)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였다. 이 논문은 환경인문학의 개념과 간략한 역사, 주요 쟁점과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철학과 환경사, 생태비평 등은 한국에서 여전히 주변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연구되면서 확산하고 확립되어 왔다. 이제 그동안 인문학의 여러 분과학문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온 연구와 교육의 흐름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논문은 ‘환경인문학’이라는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논의의 확장과 심화에 작은 기여를 하기를 희망한다.

2. 환경인문학의 간략한 역사와 개념

2.1. 간략한 역사

많은 학자들은 환경인문학을 대체로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흐름으로 바라본다. 보통 많이 언급되는 것은 호주의 사례이다.¹⁴ 이 시기 호주에서는 ‘생태인문학’(ecological humanities)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 캔버라에 있는 호주 국립

14 김옥동(2021), 『환경인문학과 인류의 미래』, 파주: 나남출판, pp. 76-85; Hannes Bergthaller et al. (2014), “Mapping Common Ground: Ecocriticism, Environmental History and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Environmental Humanities* 5, p. 262; Elizabeth DeLoughrey, Jill Didur and Anthony Carrigan (eds.) (2015), *Global Ecologies and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Postcolonial Approaches*, New York, NY; Abingdon, Oxon: Routledge, p. 2; Robert S. Emmett and David E. Nye (2017),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A Critical Introduction*, Cambridge, MA: MIT Press, p. 3; Emily O’Gorman et al. (2019), “Teaching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Practices”, *Environmental Humanities* 11 (2), p. 431; J. Andrew Hubbell and John C. Ryan (2022), *Introduction to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Abingdon, Oxon; New York, NY: Routledge, p. 11.

대학교의 자원 및 환경 연구센터에서 ‘국가 생태인문학 워킹 그룹’(National Working Group on the Ecological Humanities)의 첫 모임이 열렸고, 인류학자 데보라 버드 로즈, 역사학자 리비 로빈, 역사학자 톰 그리피스, 생태철학자 프레야 매튜스 등이 여기 속해 있었다. 이후 여기에 기후과학자 월 스테판, 철학자 발 폴럼우드 등도 참가하였다.¹⁵ 이어 데보라 버드 로즈와 리비 로빈은 2001년에 「생태인문학을 위한 선언: 지식의 직물을 다시 짜기」¹⁶를 발표하고, 2004년에는 「행동 속의 생태인문학: 초대」¹⁷라는 글을 써서 생태인문학이라는 새로운 흐름의 시작을 알렸다. 호주에서의 생태인문학 연구는 특히 선주민들의 토착적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포스트식민적 문제에 주목하는 특성을 지녔다.¹⁸

이보다 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환경인문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사례는 1998년 체코에서이다. 슈미트 등에 의하면, 생물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하나 리브로바(Hana Librová)가 체코 브르노의 마사리크 대학교 철학부에서 ‘환경인문학’(Humanitní environmentalistika)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는 관련 연구 센터와 교육 프로그램의 설립으

15 Catherine Rigby (2019), “Weaving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Australian strands, configurations, and provocations”, *Green Letters* 23 (1), p. 6. 또한 에미트와 나이는 1990년대 호주에서 새로 시작한 흐름과 동시에 미국 MIT에서 열렸던 “인문주의적 환경 연구에 대한 맥아더 워크숍”(the MacArthur Workshop on Humanistic Studies of the Environment, 1991–1995) 역시 “인간의 제도, 신념과 관행 속에 생태학적 문제를 자리 잡게 해서 자연과 문화의 통상적인 이분법을 넘어서려고 했다”고 보았다. Emmett and Nye (2017), p. 3.

16 Deborah Bird Rose and Libby Robin (2001), “A Manifesto for the Ecological Humanities”, 2026.7.4. <https://fennerschool-associated.anu.edu.au/ecologicalhumanities/manifesto.php>

17 Deborah Bird Rose and Libby Robin (2004),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in Action: An Invitation”, *Australian Humanities Reviews* 31–32, 2025.10.28. <https://australianhumanitiesreview.org/2004/04/01/the-ecological-humanities-in-action-an-invitation/>

18 DeLoughrey et al. (2015), pp. 8–9.

로 이어졌다.¹⁹ 이후 문화권별로 차이는 있지만 2010년을 전후하여 호주에서도 환경인문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서 유럽과 영미권에서는 주로 이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관심을 가진 연구의 경향은 모든 대륙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⁰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20여 년 사이에 점점 많은 연구소나 센터, 학위과정 등이 생겨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²¹

에미트와 나이는 이 새로운 연구 분야를 위한 학제적 노력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났다고 서술한다.²² 하이제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는 여러 나라에서 서로 다른 시간의 선을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고 하면서,²³ “환경주의의 서로 다른 역사와 정치, 그리고 상이한 제도적 구조와 과정이 환경인문학으로 나아가는 다양한 궤도에 영향을 미친다”²⁴고 보는데, 이는 설득력 있는 지적이다.

19 Matthias Schmidt, Jens Soentgen and Hubert Zapf (2020), “Environmental humanities: an emerging field of transdisciplinary research”, *GAIA* 29 (4), p. 225; O’Gorman et al. (2019), p. 431.

20 Emmett and Nye (2017), pp. 4-5.

21 생태인문학 또는 환경인문학의 전개 과정과 현황을 알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몇몇 논문 또는 자료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David E. Nye et al. (2013), *The Emergence of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Mistra, 2025.11.2. <http://www.mistra.org/en/mistra/publications/other-publications/background-paper---the-emergence-of-the-environmental-humanities.html>; O’Gorman et al. (2019); Chia-ju Chang (2019), *Chinese Environmental Humanities: Practices of Environing at the Margins*,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Debajyoti Biswas and John C. Ryan (eds.) (2025), *Environmental Humanities in India*, Singapore: Springer Nature; Gabriela Jarzębowska, Aleksandra Ross and Krzysztof Skonieczny (eds.) (2025), *Non-Western Approaches in Environmental Humanities*, Göttingen: V&R unipress.

22 Emmett and Nye (2017), p. 1.

23 Ursula K. Heise (2016),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and the Futures of the Human”, *New German Critique* 128, p. 22: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인류학자, 철학자, 문학비평가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미국 학자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협력해 왔는데, 이는 환경 문제와 선주민의 역사 및 정치 문제의 긴밀한 연관성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24 Heise (2016), p. 22.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무(無)로부터 갑자기 출현한 것은 아니다. 베르 크탈러 등은 인문학이 세계적인 생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신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환경인문학’이라는 흐름이 출현하기 반세기 또는 그 전에 “전 지구적 생태 위기의 복잡한 인간적 측면”을 논한 루이스 뎀퍼드(Lewis Mumford), 레이첼 카슨, 배리 커머너(Barry Commoner) 등을 예로 든다.²⁵ 또한 환경인문학을 “오래된 아이디어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²⁶라고 부른 홀 등은 1950년대에 ‘지구의 얼굴을 바꾸는 인간의 역할’(Man’s Role in Changing the Face of the Earth)이라는 제목으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개최된 학제적 회의에 대한 동물학자 마스틴 베이츠(Marston Bates)의 보고를 언급한다.²⁷ 에미트와 나이 역시 이와 비슷하게 환경인문학을 “오래된 뿌리를 가진 미래 지향적 분야”²⁸라고 부른다.

환경인문학의 전사(全史)로는 저자의 문화적 배경이나 분야 등에 따라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존 뮤어, 알도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 아날 학파, 루이스 뎀퍼드, 레이첼 카슨, 배리 커머너, 발 플럼우드, 캐럴린 머천트의 『자연의 죽음』,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정신생태학,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등 다양한 사상과 실천의 흐름이 소환된다.²⁹ 다만 환경인문

25 Berghthaller et al. (2014), p. 262.

26 Hall et al. (2015), p. 134.

27 Hall et al. (2015), p. 134; Sörlin (2012), p. 788.

28 Emmett and Nye (2017), p. 252.

29 Sörlin (2012), p. 788; DeLoughrey et al. (2015), p. 10; Deborah Bird Rose et al. (2012), “Thinking Through the Environment, Unsettling the Humanities”, *Environmental Humanities* 1 (1), p. 3; Emmett and Nye (2017), pp. 3-4; Hubbell and Ryan (2022), pp. 7-9; 김옥동(2021), pp. 67-76; Neimanis et al. (2015), p. 71. 에미트와 나이는 그 밖에도 환경인문학의 지적 계보로 포함될 수 있는 사상의 예로 통합적이고 지구적인 자연 연구를 제시한 알렉산더 폰 훔볼트와 에메 봉플랑의 『지리학 논문』(1807), 1865년에 석탄 공급, 소비, 영국 제국에 대한 글을 출간한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 1926년에 생물권(biosphere) 개념을 제시한 블라디미르 베르나츠키 등을 든다. Emmett and Nye (2017), p. 4. 조니 애덤슨도 알렉산더 폰 훔볼트를 예로 든다. Joni Adamson (2016), “Humanities”, *Keywords for Environmental Studies* (ed. by William A. Gleason and David

학의 역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운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되어 왔다는 점,³⁰ 그리고 ‘환경인문학’이나 ‘생태인문학’이라는 용어가 없을 때에도 특히 환경철학과 환경사가 먼저, 뒤이어 생태비평이 활발하게 연구되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³¹ 하이제의 지적처럼 환경인문학은 일반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연구 영역들을 결합하면서 등장하였고, 환경철학, 환경사, 생태비평 등은 초기에 각자 자신들이 속한 분과학문에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³²

니마니스 등은 통상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환경인문학의 ‘기원’ 또는 ‘등장’이라는 선형적 서사에 거리를 두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인 서술이 대체로 서구적 전통을 중심에 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분야의 출현 이야기는 여러 대안적 방식으로 서술될 수 있으며 이것이 환경인문학의 ‘역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보는데,³³ 이는 설득력 있는 지적이다.

2.2. 개념과 특성

위에서 논의한 환경인문학의 간략한 역사를 배경으로 아래에서는 이 연구 분야에 대한 여러 정의 가운데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서 그 핵심적인 특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환경인문학(또는 생태인문학)과 관련된 논문이나 자료를 살펴보면, 이 개념에 대해 엄밀한 정의를 내리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정의를 내리지

N. Pellow),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137-138.

30 Hubbell and Ryan (2022), p. 9.

31 Sabine Wilke (2015), “Environmental Humanities”, *Ecocriticism: Eine Einführung* (ed. by Gabriele Dürbeck und Urte Stobbe), Köln: Böhlau, pp. 96-99; Heise (2016), p. 22; Neimanis et al. (2015), p. 71. 니마니스는 그 밖에도 인류학, 인문지리학 분야 및 학제적 연구에서 환경인문학의 출현에 기여한 학자들을 언급한다.

32 Heise (2016), p. 22.

33 Neimanis et al. (2015), pp. 72-73.

않거나, 아니면 대체로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필요한 작업가설 정도로 매우 느슨하게 개념을 설명하는 정도이다. 허칭스에 의하면 환경인문학의 정의와 관련되어 특징적인,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려는 지속적인 저항”이 만들어 내는 “탄성”(彈性, resilience)은 의도적인 것이다.³⁴ 환경인문학의 정의나 작업가설과 관련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인문학』이라는 저널의 1호에 실린 공동 논문 “환경을 통해 생각하기, 인문학을 불안정하게 하기”에서 데보라 버드 로즈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저자들은 “환경인문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일반적으로 환경인문학은 **우리 시대의 환경적 도전들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환경 문제에 질적 분석을 적용해 온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를 바탕으로, 환경인문학은 급속하고 심화되는 변화의 시대에 **의미, 가치, 책임, 목적이라는 근본적 질문들(fundamental questions of meaning, value, responsibility and purpose)**을 다룬다.

[...] 인문학과 사회·환경과학 전반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 더 통합적이고 개념적으로 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인문학의 발전은 이러한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34 Rich Hutchings (2014), “Understanding of and Vision for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Environmental Humanities* 4, pp. 213-220. 코언과 푸트는 몇 가지 중요한 논점들을 둘러싼 환경인문학자들의 접근 방식과 정의(定義)에 대한 합의의 부재로 인해 오히려 환경인문학이 집단적인 지적 관심사의 집합으로 등장하였다고 본다. Cohen and Foote (2021), p. 1. 니마니스 등은 환경인문학을 간략하게 “환경 문제를 사회적·문화적·인간적 요인과 떼어낼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 방식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하면서, 이 용어가 여러 학문적 역사와 계보에서 비롯된 전통을 집합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배타적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Neimanis et al. (2015), p. 70. 에미트와 나이 역시 환경인문학 분야는 그 영역이 매우 넓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등장한 기관의 학문적 강점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말한다. Emmett and Nye (2017), p. 6.

이는 더 폭넓은 개념적 어휘로 환경 연구를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재론적 특수성에 대해 다시 사유함으로써 인문학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노력이다.³⁵

자비네 빌케는 『에코크리티시즘: 입문서』라는 책에 실린 논문 「환경인문학」에서 다음과 같이 이 개념에 대해 논한다.

환경인문학이라는 개념은 영어권 연구에서 몇 년 전부터 **인문학적 해석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에 접근하는 트랜스학문적 방식을 위한 포괄적 용어(Dachbegriff)**로 자리 잡았으며, 환경과 관련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의 연결을 목표로 한다. [...] 환경인문학은 많은 유럽 및 영미권 대학에서 통합 학위과정으로 오래전에 정착한 환경과학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등장했다. 환경인문학이라는 용어는 각자의 학문적 경계를 넘어 환경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일련의 인문학 분야 — 역사학, 철학, 신학, 문학, 미디어학, 미술사, 종교학, 문화학 등 — 를 의미한다. 이는 많은 열린 질문을 가진 야심만만한 목표이다.³⁶

슈미트 등과 슈미트와 차프는 다음과 같이 환경인문학을 정의한다.

이 새로운 연구 분야는 독일어권 국가에서도 점점 주목을 받으며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름이 암시하는 바와 달리 환경인문학은 인문학에 국한되지 않으며 종종 사회과학의 의견 제시와 방법론적 요소를 포함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환경인문학을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모두 포괄하며, 다른 과학 분야(생태학, 환경과학 등)와 비학술적 단체 및 문화와도 연결

35 Rose et al. (2012), p. 1(강조는 필자에 의함).

36 Wilke (2015), p. 94(강조는 필자에 의함).

될 수 있는 **개방적 연구 분야**로 넓은 의미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분야가 **트랜스학문적**이라고 본다.³⁷

요약하자면, 우리는 환경인문학이라는 용어를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오늘날 “세계위험사회”(Weltrisikogesellschaft, Ulrich Beck)의 중심 과제 중 하나인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생태적 문제와 질문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자연과학과 기술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고유한 과제**이기도 하다.³⁸

허벨과 라이언은 그들의 공저 『환경인문학 입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 연구 분야를 정의한다.

[...] 환경인문학은 **하나의 학문적인 전공 분야가 아니다**(not an academic discipline). 환경인문학은 **자연 세계와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학문을 통합하려는 연구 분야**이다.³⁹

그 밖에도 몇 가지 정의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환경인문학’이라는 용어가 문화·문학생태학, 환경사회학, 환경인류학, 인문지리학, 환경사, 환경윤리 등의 **공동 연구 관심사**를 강조할 때 사용되고 있다. 생태 위기라는 징후 속에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이들의 공통적이면서도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관심과 그

37 Schmidt et al. (2020), p. 225(강조는 필자에 의함).

38 Matthias Schmidt and Hubert Zapf (eds.) (2021), *Environmental Humanities: Beiträge zur geistes- und sozialwissenschaftlichen Umweltforschung*, Göttingen: V&R Unipress, p. 9(강조는 필자에 의함).

39 Hubbell and Ryan (2022), p. 6(강조는 필자에 의함).

들의 학제적 협력을 위해 이제 이 영어로 된 집합 개념이 확립되었다 [...]. ‘환경인문학’이라는 라벨은 인문학에 **사회적 관련성**을 부여하는데, 이 사회적 관련성은 인문학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인문학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또 이 라벨은 사회과학, 최근에는 환경과학과의 다면적인 **학제적 협력 가능성**도 보여 준다. [...]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가지는 아주 다양한 측면에 대한 현재의 뜨거운 논쟁에 환경인문학은 ‘**개념적 명확성, 도덕적 무게 그리고 역사적 깊이**’(Wilke)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환경인문학이 환경과학 및 자연과학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⁴⁰

환경인문학(Umwelt-Geisteswissenschaften/sciences humaines de l’environnement/scienze umane dell’ambiente)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떠오르는 분야이다. 여러 하위 분야를 연결하는 **메타학문**으로서, 환경인문학은 우리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환경 문제의 문화적·역사적·윤리적 차원에 대해 새롭고 더 종합적인 통찰을 제공**하려고 한다. 인류학자, 인문지리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와 문화연구자, 철학자, 작가, 예술가, 교사들은 이제 **환경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통의 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장은 또한 생물학자, 엔지니어, 환경과학자, 의학 연구자, 사회과학자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비즈니스 리더와 더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⁴¹

위에서 인용한 몇 가지 정의 또는 작업가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인문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0 Aurélie Choné et al. (2019), “Environmental Humanities: Wissenstransfer und Wissenserneuerung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 Einleitung”, *Revue d’Allemagne et des pays de langue allemande*, 51 (2), pp. 275-276(강조는 필자에 의함).

41 Forêt et al. (2014), p. 67(강조는 필자에 의함).

첫째, 환경인문학은 인류세의 기후·생태 위기라는 시대적 도전에 대한 인문학의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는 노력이다. 환경인문학은 이와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지만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 환경인문학은 학제적(interdisciplinary) 또는 트랜스학문적(transdisciplinary) 협력을 그 핵심적인 특성으로 하여 다양한 관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는 개방적 연구 분야이다.⁴² 이 학제적 협력은 인문학 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인문학과 자연과학이라는 “두 문화”(C. P. Snow), 더 나아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라는 지식의 “세 문화”⁴³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 또한 환경인문학은 단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포함하기도 한다.⁴⁴

셋째, 환경인문학은 비학문적 분야와도 협력하며,⁴⁵ 국가적, 문화적, 역사적 장벽을 넘나드는 경계 넘기의 특성을 지닌다.⁴⁶ 이 학제적 노력에서는 지식을 공동체에 전파하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⁴⁷ 따라서 환경인문학은 고립된 실천이 될 수 없으며, 학문, 시대, 전문 분야 사이의 광범위한 협력을 필수적인 특성으로 한다.⁴⁸

넷째, 환경인문학은 느슨한 연결과 실험 정신을 특성으로 한다. 이 연

42 Schmidt et al. (2020), p. 225. 나이 등 역시 환경인문학이 본질적으로 학제적이라고 지적한다. Nye et al. (2013), p. 8.

43 ‘세 문화’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점점 더 커지는 간극을 지적한 스노우의 ‘두 문화’(Two Cultures) 논의에 사회과학을 추가한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제롬 케이건(Jerome Kagan)의 개념이다. 김옥동(2021), pp. 30-31; Libby Robin (2018), “Environmental Humanities and Climate Change: Understanding Humans Geologically and Other Life Forms Ethically”, *WIREs Climate Change* 9 (1), p. 2.

44 Schmidt et al. (2020), p. 225.

45 Schmidt et al. (2020), p. 225; Heise (2016), p. 24.

46 Hubbell and Ryan (2022), p. 6.

47 Cohen and Foote (2021), p. 3.

48 Cohen and Foote (2021), p. 3.

구 분야는 일반적으로 연구자 네트워크, 연구 센터나 허브, 통합된 학위 프로그램 및 신진 연구자 프로그램 등 실천적인 연합의 형태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⁴⁹ 이 네트워크는 대체로 느슨하며, 연결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특성은 교육에도 적용이 되는데, 오고먼 등에 의하면 환경인문학 교육은 “너무 엄격한 규범이나 일련의 방법론에 제한되지 않는, 열려 있고 실험적이며 가능성으로 가득한 창발적 공간”⁵⁰으로서의 교육을 의미한다.

다섯째, 환경인문학은 기후·생태 위기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특성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상술하도록 한다.

여섯째, 환경인문학은 공공정책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⁵¹ 개입과 변화를 목표로 한다.⁵² 이 특성을 코언과 푸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무엇보다도 환경인문학을 하나로 묶는 것은 환경 피해를 해결하려는 공동의 열린 노력에 대한 감각과, 이 분야의 학문이 자신의 근본적 가정들을 다시 검토하고 폭넓은 지지층과 소통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다. 환경인문학은 그 구성 요소로 쉽게 환원되지 않으며, 시간과 전 지구를 가로지르는 긴급한 생태적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자-활동가들의 이질적 공동체를 모으는 분야이다.”⁵³

2.3. 환경인문학의 필요성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환경인문학은 왜 필요한가?

49 Wilke (2015), p. 95.

50 O’Gorman et al. (2019), p. 458.

51 Nye et al. (2013), p. 8; Hubbell and Ryan (2022), p. 6.

52 Cohen and Foote (2021), p. 3.

53 Cohen and Foote (2021), p. 2.

첫째, 과학과 기후·생태 위기를 ‘인간화하기’⁵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인문학이 환경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⁵⁵라는 환경사학자 쇠를린의 질문처럼, 일반적으로 기후·생태 위기는 과학자들의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과학만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환경인문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필요성은 복합위기의 시대에 더욱 커진다.

예컨대 하이제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 실망하는 기후과학자들의 예를 들면서, 기후 문제가 다양한 공동체에서 어떤 정치적·사회적·문화적·감정적·수사적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단순히 과학적인 사실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⁵⁶ 이와 같은 맥락에서 널리 인용되는 쇠를린의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만으로 우리가 행성적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한동안은 경제와 인센티브 중심의 새로운 공공 관리 해결책에 대한 기대가 컸다. [...] 이번에는 우리의 기대가 인문학에 달려 있는 것 같다. 2012년 2월, 유럽과학재단과 유럽 정부 간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 램이 의뢰한 ‘우리의 불안정한 지구를 위한 환경적·사회적 도전에 대한 대응’(RESCUE) 이니셔티브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인문학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며, 문화적 가치, 정치적·종교적 신념, 인간의 뿌리 깊은 행동 방식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여전히 지배하는 세상에서, **환경과 관련된 지식**의 개념(the idea of *environmentally*

54 “과학을 인간화하기”(to humanize)라는 표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all et al. (2015), p. 134.

55 Sörlin (2012), p. 788.

56 Heise (2016), p. 24.

relevant knowledge)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 전문가들이 측정에는 능숙하지만 막지는 못하는 행성적 압력의 인간 행위주체들(*the human agents of the planetary pressure*)에게 우리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꿈꿀 수 없다.⁵⁷

쇠를린은 이 인용문에서 기후·생태 위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 인문학에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이나 인간의 행위에 의해 유발된(*anthropogenic*) 행성적 차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와 같은 변화를 야기한 인간 행위주체들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홀름 등 역시 과학의 분석 능력이 행성적 변화의 주된 원인, 즉 인간적 요소(*human factor*)를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⁵⁸ 인류세에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 “철학, 역사, 종교학, 젠더 연구, 언어 및 문학 연구, 심리학, 교육학 등 인문학 분야는 인간의 동기, 가치 및 선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러한 분야의 전문성이 인간의 선호, 관행,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라고 믿는다.”⁵⁹ 즉 허벨과 라이언의 지적처럼, 과학이 환경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 뛰어나다면 인문학의 역할과 강점은 다른 데 있다. 즉 인문학은 환경 변화와 환경 위기의 도덕적·윤리적·사회적·문화적 차원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인문학은 과학과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를 복합적인 것으로 만들고 보완·확장하는 것이다.⁶⁰ 하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환경 위기는 단순히 과학적 문제

57 Sörlin (2012), p. 788.

58 Holm et al. (2015), p. 979.

59 Holm et al. (2015), p. 978.

60 Hubbell and Ryan (2022), p. 10. 저자들은 같은 책의 다음 대목에서도 역시 이와 유사한 지적을 한다. Hubbell and Ryan (2022), p. 506. 또한 다음 대목들도 참조할 것. Neimanis

가 아니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문제로 재해석되고 있으며, 인문학은 이러한 중요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권적 위치에 있다”⁶¹고 하면서 더 적극적인 주장을 펼친다.

환경인문학의 이러한 목표는 과학을 ‘인간화하기’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새로운 연구 분야를 “오래된 아이디어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⁶²라고 부른 홀 등은 1955년 동물학자 마스턴 베이츠가 한 말을 인용한다. 즉 과학과 인문학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인데, 그 이유는 “과학은 인문학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 과학 자체가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인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것이다.⁶³ 저자들은 그로부터 약 60년 후에 새로운 학문 분야인 환경인문학이 과학을 인문학 안에 통합하자는 베이츠의 요청에 응답하며 여러 분야의 통찰을 결합하여 과학을 ‘인간화’(to humanize)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본다.⁶⁴ “일반적으로, 모든 주요 환경 문제는 인문주의적 관점들에서(from humanistic perspectives)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과학적 통찰과 결합될 때 더욱 그러하다.”⁶⁵ 이오비노와 오퍼만이 지적한 것처럼, 지질학적 차원에서부터 생물학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긴급한 환경 문제가 본질적으로 사회적·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며 경제적·정치적 의제와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바로 이 새로운 학제적 연구 분야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논거이다.⁶⁶

이처럼 환경인문학은 환경 문제와 인간-환경 상호작용의 인간적 차원, 즉 기후·생태 위기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정서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et al. (2015), p. 70; Schmidt et al. (2020), p. 226; Braidotti et al. (2013), pp. 506–508.

61 Heise (2016), p. 25.

62 Hall et al. (2015), p. 134.

63 Hall et al. (2015), p. 134.

64 Hall et al. (2015), p. 134.

65 Hall et al. (2015), p. 134.

66 Iovino and Oppermann (2017), p. 3.

필요하다. 이를 달리 말하면 포레 등의 논문에 나타난 것처럼 “환경 문제를 문화적 이슈로 다르게 제시하기”(recasting environmental problems as cultural issues)⁶⁷라고도 할 수 있다. 즉 환경인문학은 기존의 환경 문제를 문화적 문제로 재구성하여 환경 연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로즈와 로빈의 지적대로 환경인문학의 접근 방식은 환경에 대한 인문학적 작업이 ‘비과학적’으로 여겨지고 단지 자연과학과 ‘대중’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에만 국한되는 방식에 거리를 둔다.⁶⁸ 더 나아가 포레 등의 지적은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대화가 필요한 것은 단지 환경 시스템이 점점 더 (다양한 신념, 편견, 전통을 가진) 인간에 의해 형성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과학적 발견이 정치적·문화적·경제적 맥락에서 해석되고 적용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은 다시 과학적 발견의 범위와 종류를 형성한다.”⁶⁹ 즉 과학적 사실의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맥락과 인간적 측면만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 자체가 정치적·문화적·경제적 맥락 속에 있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인문학은 인문학을 탈인간화하고 인간을 탈중심화하기 위해 필요하다.⁷⁰

브라이도티 등은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자연과 문화의 관계와, 인간과 자연 세계 간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것”⁷¹이라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홀 등도 환경인문학의 목적이 “우리 행성과 우리 사이

67 Forêt et al. (2014), p. 68.

68 Rose et al. (2012), p. 2. 다음의 논지도 참조할 것. Bergthaller et al. (2014), p. 268.

69 Forêt et al. (2014), p. 67.

70 “인문학을 탈인간화하기”(dehumanizing the humanities)와 “인간을 탈중심화하기”(decentering the human)라는 표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ubbell and Ryan (2022), p. 10.

71 Rosi Braidotti and Hiltraud Casper-Hehne (2023), “New Humanities”, *Handbook of the Anthropocene: Humans between Heritage and Future* (ed. by Nathanaël Wallenhorst and Christoph Wulf), Cham: Springer Nature, p. 464.

에 포용적이고 윤리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관계를 만들어 내고 실제로 맺는 것”⁷²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은 발 플럼우드가 말했듯이 “인간을 생태적 관계 속에, 비인간을 윤리적 관계 속에 (다시) 놓는 과제”⁷³일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⁷⁴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행성적인 생태 위기는 자연/문화, 인간/비인간, 남성/여성, 동양/서양, 북/남, 생태/경제 등 인간중심적인 이분법적 세계관의 물질적·역사적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⁷⁵ 이것은 발 플럼우드가 『페미니즘과 자연의 지배』(1993)에서 서구 문화의 바탕에 놓여 있다고 본 이성과 자연, 문화와 자연의 이분법이기도 하고, 라투르가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1991)에서 서구 근대의 ‘헌법’이라고 본 자연과 문화 사이의 ‘정화’이기도 하다. 환경인문학은 이오비노와 오퍼만이 지적하는 대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념 체계를 인간중심적이지 않은 담론적 변화로 바꿀 새로운 사유의 방식들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더 지속 가능한 경제적 관행, 사회적 행동, 도덕적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실행하게 될 것이다.”⁷⁶ 이 새로운 연구 분야는 생태적 전환에서 핵심적인 “인간중심주의 또는 인간 예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인간과

72 Hall et al. (2015), p. 134.

73 Val Plumwood (2002), *Environmental Culture: The ecological crisis of reason*, London; New York: Routledge, pp. 8-9. 여기서 발 플럼우드는 “인간의 정체성을 합리주의적으로 자연과 과잉 분리한 결과 발생한 두 가지 역사적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녀는 이를 “인간을 생태적 관계 속에, 비인간을 윤리적 관계 속에 (다시) 놓는 과제”(the tasks of (re)situating humans in ecological terms and nonhumans in ethical terms)라고 요약한다. 다음의 논지도 참조할 것. Rose et al. (2012), p. 3; 한윤정(2020), 「생태문명을 위한 환경인문학의 역할」, 앤드루 슈왈츠 외, 한윤정 엮고 옮김, 『생태문명 선언: 위기, 희망, 지속 가능한 미래』, 서울: 다룬백년, pp. 154-158; 유기쁨(2022), 「발 플럼우드의 철학적 애니미즘 연구: 장소에 기반한 유물론적 영성 개념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42, 한국종교문화연구소, p. 331.

74 Rose et al. (2012), p. 3.

75 Iovino and Oppermann (2017), p. 4.

76 Iovino and Oppermann (2017), p. 5.

비인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는 인식⁷⁷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을 탈중심화하고 기존의 인문학의 성격 역시 포스트인간 중심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인문학이 가능하게 하고 촉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환경인문학은 로즈 등의 주장처럼 인문·사회과학에서 점점 더 제기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더 통합적이고 개념적으로 민감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대응이자 “더 폭넓은 개념적 어휘로 환경 연구를 풍부하게 하려는 노력”⁷⁸으로 볼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환경인문학이 가능하게 하는 이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였다. 포레 등은 기후·생태 위기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한 협업과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환경인문학으로 인해 이를 위한 공동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이 지붕 또는 우산 개념을 통해 그동안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또는 분과학문별로 이루어졌던 연구와 교육 등의 노력이 모이고 학제적 연구 및 학계 외부와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이다.⁷⁹ 환경인문학이 인문학과 과학의 창의적인 협력을 촉진한다고 보는 에미트와 나이나,⁸⁰ 이 연구 분야를 학문의 부문화(departmentalization)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자 인문학을 정치학, 사회과학 및 환경과학과 대화하게 하는 초대로 본 더러프리의 견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⁸¹ 허벨과 라이언은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좁은 시각으로 볼 여유가 없다 — 우리는 좁은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생기는 모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⁸²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넓은 시각이 긴급하게 필

77 조향(2024), p. 306.

78 Rose et al. (2012), p. 1.

79 Forêt et al. (2014), p. 67.

80 Emmett and Nye (2017), p. 7.

81 DeLoughrey et al. (2015), p. 2.

82 Hubbell and Ryan (2022), p. 4.

요함을 역설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요청되는 것은 학문 사이의 의사소통인데,⁸³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각자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다른 분야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러 학문 분야를 결합하여 지식에 대한 더 전일적인 접근 방법(a more holistic method of knowledge)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⁸⁴ 문제 상황의 복잡성은 새로운 접근법과 학문의 새로운 형식 또는 배치를 요청한다. 여러 학문 분야의 전일적인 결합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이 분야는 자연과 인간을 나누는 세계관을 거부하며, 사회적·문화적·생태적 관심사들을 하나의 태피스트리로 엮는다. 환경인문학은 환경 예술, 역사 및 다른 전문 분야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분야이다 [...]”.⁸⁵ 슈미트 등도 오늘날의 환경 변화는 전 지구적 규모에서조차 주로 인간의 활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인문학 및 사회과학과 결합하여야만 체계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즉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재난”(social disasters)으로 보아야 이를 규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위기의 이러한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차원을 고려해야 하므로 환경인문학이 다면적인 환경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⁸⁶ 포레 등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일한 학문이나 접근 방식은 없지만, 여러 학문의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메타학문으로서의 환경인문학이 인문학 분야에서 더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경 문제의 문화적 복잡성이 충분히 다루어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⁷ 베르크탈러 등은 이와 같은

83 Hubbell and Ryan (2022), p. 4.

84 Hubbell and Ryan (2022), p. 4.

85 Hubbell and Ryan (2022), p. 4

86 Schmidt et al. (2020), p. 227.

87 Forêt et al. (2014), pp. 67-68. 니마니스 등은 “인식론적 모노컬처(epistemological monoculture)의 위험”을 경계할 수 있는 환경인문학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Neimanis et al. (2015), p. 69.

공동 연구가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제도적 환경을 변화시켜 기후·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연구에 더 친화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바라본다.⁸⁸ “광범위한 학문 분야의 학술적 작업을 새로운 개념적 우산 아래 모으으로써, 환경인문학은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연구가 공공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임계질량(the critical mass)과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⁸⁹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보면, 허벨과 라이언이 말하듯이 가장 긴급한 문제들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또한 세계와 그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질문의 범위를 넓히고 싶다. 우리 환경의 상황에 관여하는 것은 단지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행성에 다르게 거주할 수 있도록 다르게 사고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⁹⁰ 그들은 이 ‘다른 사고’가 단지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전일적인 것이며, 환경인문학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모든 생명체 사이의 상호연결성에 대해 우리의 눈과 마음, 그리고 마음을 열어 주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좋은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구한다고 본다.⁹¹ 이는 생태적 전환의 주체성 형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여러 학자들이 환경인문학의 고유한 역능 가운데 특히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상상력과 내러티브의 중요성이다.⁹² 인문학적 상상력은

88 Bergthaller et al. (2014), p. 273.

89 Bergthaller et al. (2014), p. 263.

90 Hubbell and Ryan (2022), p. 5.

91 Hubbell and Ryan (2022), p. 5. 조효제는 사회생태전환에 있어 “지구의 한계 내에서 모든 존재의 좋은 삶”이라는 추상적인 상위목적이 가장 현실적인 비전임을 역설한다. 조효제(2025), 『불타는 지구에서 다르게 살 용기: 새로운 전환의 서사를 위하여』, 파주: 창비, pp. 130-134.

92 Iovino and Oppermann (2017), p. 13; Cohen and Foote (2021), pp. 2-3; Schmidt et

“새로운 인간 조건”(the new human condition)⁹³ 아래 살아가게 된 인간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가능한 대안을 찾는 데 필요하다. 내러티브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로, 과학적 연구는 문화적·사회적 내러티브로 번역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슈미트 등이 환경인문학이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두 번째로 든 “환경 변화의 문화적 표현과 그 영향에 대한 분석”⁹⁴에 해당한다. 환경인문학은 기후·생태 위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문화적·사회적 내러티브로 어떻게 번역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문제를 더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⁹⁵ 둘째로, 에미트와 나이가 머천트를 인용하면서 한 이야기처럼 새로운 내러티브는 새로운 사고와 감각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고, 또 새로운 윤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⁹⁶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한데, 환경인문학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새로운 내러티브를 통해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이오비노와 오퍼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로운 생태적 관점과 인식을 통해 사회적 문제

al. (2020), p. 227; Heise (2016), pp. 29-30; Ursula K. Heise (2017), “Introduction: Planet, species, justice — and the stories we tell about them”, *The Routledge Companion to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ed. by Ursula K. Heise, Jon Christensen and Michelle Niemann), Abingdon, Oxon; New York, NY: Routledge, pp. 6-9.

93 Holm et al. (2015), p. 983; Braidotti et al. (2013), p. 507.

94 Schmidt et al. (2020), p. 227.

95 Schmidt et al. (2020), p. 227.

96 Emmett and Nye (2017), p. 6; 머천트(2022), pp. 222-239; Iovino and Oppermann (2017), pp. 6-7. 또한 Emmett and Nye (2017), p. 168: “환경인문학은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끌리는 것으로 만드는 새로운 내러티브와 개념을 제공할 수 있다.”; DeLoughrey et al. (2015), p. 14: “작가, 학자, 언론인, 활동가 모두가 새로운 용어, 서사, 따라서 새로운 사고와 정동의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더러프리가 드는 예는 크뤼첸(Crutzen)과 스토머(Stoermer)의 ‘인류세’(Anthropocene), 마르티네즈-알리에(Martinez-Alier)의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of the poor), 립 닉슨의 ‘느린 폭력’이다. 또한 베르크탈러 등은 프레이밍의 중요성을 통해 인류세의 기후·생태 위기와 관련된 인식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룬다. Bergthaller et al. (2018), pp. 1-11.

와 생태적 문제의 교차점을 다루면서, 환경인문학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실천’에 책임이 있는 ‘이야기(및 이론)’와 내러티브, 담론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이는 인간의 행위능력이 무수한 연결들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시간-공간-물질의 지평 안에 놓일 때, 환경인문학 담론 또한 ‘인간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확대하는 데’(Chakrabarty)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와 비인간 세계의 접촉 지대(contact zones)에 대한 기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⁹⁷ 이처럼 환경인문학은 인류세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도구를 제공한다. 알렉사 바이크 폰 모스너(Alexa Weik von Mossner)가 지적하듯이 인류세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현재 상상가능한 것의 경계를 계속 밀어붙이는데, 환경인문학은 확장된 비판적 상상력과 이론적 도구를 통해 이러한 경계 자체에 도전하며, 이러한 이야기들과 그 주체들을 시각화하고 목소리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⁹⁸ 더러프리 등은 자신들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서사적 실천이 비인간 자연과 환경정의의 재현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서사와 미학적 형식에 대한 관심이 환경 위기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인문학이 우리 환경의 미래에 필요불가결한 이유”라고 주장한다.⁹⁹ 그들은 하이제 등을 인용하여 내러티브가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고 표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어떤 내러티브는 기후·생태 위기에 기여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내러티브는 더 생태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지적한다.¹⁰⁰ 환경인문학 교육에 있어서도 스토리텔링은 “소통과 변화를 가능케 하는 강력한 특성”으로 인해 핵심적인 교육의 기술이자 도구로 중

97 Iovino and Oppermann (2017), pp. 6-7.

98 Iovino and Oppermann (2017), p. 13.

99 DeLoughrey et al. (2015), p. 13.

100 DeLoughrey et al. (2015), pp. 13-14.

심에 놓여 있다.¹⁰¹

또 환경인문학은 생태시민적 책임을 기르는 시민인문학(civil humanities)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환경인문학에서는 일반 시민과의 소통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띠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환경인문학은 윤리적이고 교육적인 프로젝트로서, 생태시민적 책임과 생태적 문해력을 기를 수 있으며 다양한 환경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¹⁰² 여기서 시민은 지식과 실천의 공동 주체가 될 수 있다.¹⁰³

3. 환경인문학의 몇 가지 주요 쟁점

이 장에서는 환경인문학의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첫째는 환경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성격에 대한 것이다. 환경인문학은 하나의 새로운 학문적 방법론인가, 새로운 분과학문 또는 학문 분야인가? 코언과 푸트는 환경인문학자들이 단일한 방법이나 결정적인 분석 대상을 공유하지 않으며, 환경인문학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법들과 대화들이 수렴하여 이루어지는 이질적인 장이라고 본다.¹⁰⁴ 베르크탈러 등 역시 환경인문학이 학문의 경계를 없애거나 공동의 방법론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¹⁰⁵ 그러나 그 성격에 대해서는 환경인문학을 ‘지붕’이나 ‘우산’ 개념 또는 여러 학문 사이의 ‘대화’로 보는 관점부터 환경인문학을 통해 기존 분과학문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창발이 일어난다

101 O’Gorman et al. (2019), p. 448: “내러티브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교육 도구이며, [...] 다양성과 복잡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방법이다.”

102 Iovino and Oppermann (2017), p. 3; Neimanis et al. (2015), p. 89.

103 Neimanis et al. (2015), p. 89.

104 Cohen and Foote (2021), pp. 2, 5.

105 Bergthaller et al. (2014), p. 273.

고 보는 관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¹⁰⁶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분과학문인가에 대해 허벨과 라이언은 하나의 학문 분야가 아니라고(not an academic discipline) 하였고,¹⁰⁷ 로즈 등은 “하나의 새로운 학제적 분야”(a new interdiscipline)라고 보았다.¹⁰⁸ 다른 차원에서 몇몇 학자들은 환경인문학을 “메타학문”(meta-discipline/metadiscipline)으로 규정했다.¹⁰⁹

둘째는 각 분과학문 고유의 성격(disциплиarity)과 환경인문학의 학제적 성격(interdisciplinarity) 또는 트랜스학문적 성격(transdisciplinarity) 사이의 긴장이다. 비교적 새로운 학문 분야인 환경인문학은 “전통과 전환”(tradition and transition),¹¹⁰ 연속성과 불연속성, 인문학 ‘본연의’ 임무 및 고유한 성격 대 새로운 변화, 각 분과학문의 고유한 특성과 공동의 장 사이의 긴장¹¹¹ 속에 있다. 환경인문학과 인문학의 각 분과학문 사이의 관계에는 환경인문학이 인문학을 활기 있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준다는 측면¹¹²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식과 범주를 불안정하게 하고 재사유를 요청한다는 측면¹¹³이 있고, 양자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 환경인문학에서 학제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

106 Bergthaller et al. (2014), p. 273; O’Gorman et al. (2019), pp. 443–444; Neimanis et al. (2015), p. 88. 니마니스 등은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107 Hubbell and Ryan (2022), p. 6.

108 Deborah Bird Rose (2015), “The Ecological Humanities”, *Manifesto for Living in the Anthropocene* (ed. by Katherine Gibson, Deborah Bird Rose and Ruth Fincher), Brooklyn, NY: Punktum Books, p. 1. 하이제는 환경인문학이 “새로운 학제적 매트릭스”(a new interdisciplinary matrix)로 부상했다고 보았다. Heise (2016), p. 22.

109 Bergthaller et al. (2014), p. 264: “메타학문 또는 슈퍼필드”(metadiscipline or superfield); Forêt et al. (2014), p. 67: “여러 하위 분야를 연결하는 메타학문”; Hall et al. (2015), p. 134.

110 Neimais et al. (2015), p. 70.

111 Berthaller et al. (2018), p. 253.

112 Rose et al. (2012), p. 2; 로지 브라이도티(2015), 이경관 옮김, 『포스트휴먼』, 파주: 아카넷, p. 200; Braidotti and Casper-Hehne (2023), pp. 464–465.

113 Rose et al. (2012), p. 4; Cohen and Foote (2021), p. 5.

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제도화된 학문 분과 체제에서 학제적 연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¹¹⁴ 또한 학제적 연구는 피상적으로 될 위험이 있다.¹¹⁵ 그래서 오고먼은 “학제성은 단순히 여러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나란히 두는 것이 아니고, 종합, 상호 교류(cross-fertilization)와 심층 탐구를 위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¹¹⁶고 주장한다. 베르크탈러 등에 의하면, 한 분과학문으로서의 특성과 학제성(disciplinarity and interdisciplinarity)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며,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¹¹⁷ 그리고 이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창발의 과정이다. “어디서, 언제, 아이디어들의 학제적인 전이가 풍요롭게 이루어질지는 사전에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발견의 기쁨(serendipity)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낯설어 보였던 것에서 친숙함을 인식하거나, 친숙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낯설음을 발견할 때 생겨나는 갑작스러운 통찰의 불꽃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¹¹⁸ 니마니스 등 역시 환경인문학은 새로운 협력적 탐구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환경인문학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생산적인 ‘상호 교류’를 이루려면, 그 방법론은 새로운 형태의 대화를 실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환경인문학이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중요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법, 방법, 이론, 욕구를 기르기 위한 트랜스학문적 만남의 장이자 실험실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스트-분과학문적”(post-disciplinary)이라고 부른다.¹¹⁹

환경인문학의 학제적 성격은 물론 인문학의 여러 분과학문들 사이에서도 존재하지만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어려운 도전은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

114 Bergthaller et al. (2014), p. 273; Nye et al. (2013), p. 8.

115 Nye et al. (2013), p. 8.

116 O’Gorman et al. (2019), p. 443.

117 Bergthaller et al. (2018), p. 253.

118 Bergthaller et al. (2018), p. 253.

119 Neimanis et al. (2015), pp. 86-87.

회과학 사이의 학제적 작업일 것이다. 이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환경인문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환경인문학이라는 명칭과 실제 내용 사이에는 긴장, 즉 ‘인문학’이라는 명칭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라는 ‘세 문화’ 사이의 긴장이 존재한다.¹²⁰

셋째, 더 나아가 환경인문학의 학제적 성격은 학문 세계와 학계 외부의 협업 역시 요청한다. 이것은 환경운동이나 시민단체, 예술가들, 일반시민들과의 소통 등 폭넓은 대화와 공동작업을 포함하며, ‘시민인문학’의 창출을 필요로 한다.¹²¹ 하이제 역시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을 창의적 실험 및 공공 참여와 결합하는 것을 환경인문학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¹²² 시민인문학은 생태적 문해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며, 시민들은 생태적 문명으로서의 이행 과정에서 공동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환경인문학은 이 폭넓은 대화와 협업을 위한 다양한 소통 방식을 실험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곳에서 이미 행해졌던 구체적 사례들을 참조하고 다른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넷째는 인문학의 ‘느린 학문’으로서의 성격과 기후·생태 위기의 긴급성 사이의 긴장이다. ‘기후 비상사태’라고도 불리는 기후·생태 위기의 긴급성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점에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신속한 대응과 사고와 행동의 전환을 요청한다.¹²³ 그러나 인문학은 그 특성상 빠른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이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해 베르크탈러 등은 “느린 학문”(slow scholarship)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우리는 환경인문학의 가치가 바로 이러한 최종 목표 중심의 압박이나 ‘최첨단’의 유혹에 저항하는 데 있다고 주

120 Schmidt et al. (2020), 225; Neimanis et al. (2015), p. 71.

121 Neimanis et al. (2015), pp. 88–90.

122 Heise (2017), p. 8. 다른 한편 베르크탈러 등은 환경운동과 환경인문학 사이에도 상호 영향 및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Bergthaller et al. (2014), p. 268.

123 조향(2024), p. 302.

장한다. [...] ‘기후변화’, ‘유전공학’, 심지어 ‘환경’과 같은 중요한 아이디어들은 뚜렷한 물질적 실체와 현상, 그리고 사회적 실천을 지칭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인간적 차원(human dimension)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느린 학문’이 필요하다. 이는 내용의 문제이자 동시에 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하다.¹²⁴ 즉 상황이 긴급함에도, 또는 긴급할수록 환경인문학의 느린 특성이 오히려 요청된다. “‘느린 학문’은 단순한 시간 낭비, 부르주아적 방종이나 순수문학 지향이 아니다. 그것은 뉴스 미디어의 ‘주의력 체제’(attention regime), 특히 현재의 디지털 형태에 반대한다.”¹²⁵ 베르크탈러 등은 또한 느린 폭력의 결과이자 가속화되어 나타나는 기후·생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것과는 다른 시간의 척도, 인류세적인 시간의 척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사회생태위기의 새로운 서사를 역설하는 조효제의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그는 “파국이나 생존이나”는 잘못된 이분법이며, 사회급전환이 필요한 현재의 기후비상상황에서는 직진과 우회라는 이중전략을 쓸 수 있는데, 후자에는 교육 및 연구, 사회적·문화적인 분야가 포함된다고 보았다.¹²⁶ 더 나아가면 이는 인류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이한 시간 감각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김홍중이 “파국의 일상성”이라고 부른, 예외 상태가 일상이 된 인류세의 상황에서는 “사회생태적 긴급성”의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나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문제와 함께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시간은 해러웨이의 말처럼 “우리가 사유해야 하는 시간”, “이야기가 필요한 긴급성

124 Bergthaller et al. (2014), p. 266.

125 Bergthaller et al. (2014), p. 266. ‘느린 학문’의 이상을 “느림의 이상화”라고 비판하는 견해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Gregers Andersen and Stefan Gaarsmand Jacobsen (2020), “The Urgency of a New Humanities”, *The Anthropocenic Turn* (ed. by Gabriele Dürbeck and Philip Hüpkens), New York, NY/Oxon: Routledge, pp. 177–179.

126 조효제(2025), pp. 123–127, 134–139.

의 시간”이다.¹²⁷

다섯째는 환경인문학에 필요한 종합적 관점과 분석적 관점, 건설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사이의 긴장이다. 로즈와 로빈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한편으로는 인문학이 비판과 지배적 서사 ‘흔들기’에 공통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이 어두운 시기에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건설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절실한 필요 사이에서 중요한 긴장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환경인문학은 필연적으로 비판과 행위를 동시에 수행하는 어려운 공간에 거주하려는 노력이다.¹²⁸

하이제도 이와 유사하게 종합적 관점과 분석적 관점, 멀리서 읽기와 가까이서 읽기, 건설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함께 함양하는 것이 환경인문학자들의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보았다.¹²⁹ 니마니스 등은 기후·생태 위기와 관련된 담론에서 과도한 부정적 프레이밍이 갖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강한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안적인 서사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심지어 종말론적으로 프레이밍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지 못할 수 있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의 기회를 막을 수 있다.”¹³⁰

127 김홍중(2025), 『가까스로-있음: 브뤼노 라투르와 파국의 존재론』, 서울: 이음, p. 44;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옮김, 『트리블과 함께 하기』, 파주: 마농지, p. 37.

128 Rose et al. (2012), p. 3.

129 Heise (2016), p. 28. 이와 비슷한 견해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Heise (2017), p. 8; Emmett and Nye (2017), pp. 175-176; Huchings (2014), p. 215.

130 Neimanis et al. (2015), p. 77; 기후 위기의 심리적 역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조효제(2020), pp. 67-68. 베르크탈러 등 역시 환경주의 담론에서 종종 파국적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과학적 사실만 충분히 명확하고 강력하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여섯째는 어떻게 환경인문학이 서구 중심성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서구 중심의) 환경인문학을 탈식민화하기’라는 과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러프리 등은 환경인문학에서의 포스트식민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환경 문제를 프레임하는 데 있어서 ‘초강대국의 편협함’(superpower parochialism)이라는 무비관적인 경향이 존재하며, 이는 대개 특권층과 글로벌 노스의 인식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을 반영한다”¹³¹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세를 불러온 ‘인간’의 범주를 다양화하고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을 최대한 중심에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인류세라는 개념을 둘러싼 논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류’라는 보편적 범주의 필요성과 그것을 차별화할 필요성 사이의 긴장이 그대로 환경인문학의 여러 스펙트럼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는 ‘사회적’ 범주와 ‘생태적’ 범주 사이의 긴장이다. 라투르나 헤러웨이의 “자연문화”(natureculture) 개념 또는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개념 등의 등장으로 ‘사회’ 또는 ‘문화’와 ‘자연’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 두 개념의 분리야말로 문제의 근본 원인이자 서구의 근대가 만들어 낸 문제의 양상이다. 그러나 인류세와 기후·생태 위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보여 주듯이, 환경인문학에서도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고 인간-비인간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관점과 자본주의 비판과 서구 식민주의의 역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마르크스주의적·포스트식민주의적 관점이 공존하면서 긴장 관계에 있다. 인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Bergthaller et al. (2018), p. 6. 홀름 등은 사람들의 행동이 생태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감정적·심리적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Holm et al. (2015), pp. 980-984.

131 DeLoughrey et al. (2015), p. 6. “초강대국의 편협함”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저서에서 나온 것으로, 필자가 우리말 번역을 일부 수정하였다. 립 닉슨(2020), 김홍욱 옮김,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서울: 에코리브르, pp. 68-78; Rob Nixon (2011), *Slow Violence and the Environmentalism of the Poor*,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pp. 33-39.

세와 기후·생태 위기의 핵심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환경인문학의 기본 입장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사회생태 전환이 필요한 사회-지구시스템의 위기이며,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 사회시스템 패러다임과 지구시스템 패러다임의 상호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조효제의 논의도 이 긴장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¹³² 또한 이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경인문학이 요청되는 두 가지 이유, 즉 과학을 인간화하기와 인문학을 탈인간화하기 또는 인간을 탈중심화하기 사이의 긴장과도 관련되어 있다.

환경인문학 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한 오고먼 등은 환경인문학의 핵심적인 접근법을 개발하려는 열정과 동시에 너무 엄격한 규범이나 일련의 방법론에 제한되지 않는, 열려 있고 실험적이며 가능성으로 가득한 창발적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요구의 공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 책무가 생산적인 긴장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배움을 위한 공간의 앞으로의 발전과 역동성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¹³³ 이러한 입장은 위의 다른 긴장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니마니스는 “[...] 오늘날 우리가 환경인문학의 필요성을 옹호하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모순과 다양성, 그리고 필수적인 개방성을 자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육성하는** 그런 버전의 장이어야 한다”¹³⁴고 주장하였고, 더러프리 등은 심지어 자신들이 “서로를 방해하고 왜곡하는” 방식을 옹호한다고 하였다.¹³⁵

132 조효제(2025), pp. 21-22.

133 O’Gorman et al. (2019), p. 458. 베르크탈러 등은 환경인문학이 제도화되고 안정화된 후 초기의 “논쟁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상실할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Bergthaller et al. (2014), p. 263.

134 Neimanis et al. (2015), p. 69.

135 DeLoughrey et al. (2015), p. 3.

4. 구체적 사례

4.1. 환경인문학의 하위 범주

환경인문학의 하위 범주로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환경인문학’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인문학을 통해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려고 했던 환경철학, 환경사, 생태비평은 가장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분야이다. 『인류세의 인문학』에서 캐럴린 머천트는 역사, 예술, 문학, 종교, 철학, 윤리와 정의라는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환경인문학의 대표적 분야를 서술한다.¹³⁶ 허벨과 라이언은 환경인류학, 문화지리학과 지리인문학, 환경사, 환경철학, 생태적 종교 연구, 환경예술, 생태적 문학 연구, 환경연극, 환경영화, 환경 저널리즘의 예를 든다.¹³⁷ 같은 책 결론 부분에서 허벨과 라이언은 그 밖에도 최근에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 연구”(… studies)의 예에 속하는 환경인문학의 비교적 최근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데, 비판적 동물·식물 연구, 블루 인문학, 에너지 인문학, 멸종 연구, 고환경인문학, 의료환경인문학, 북극 및 남극 인문학, 아시아 환경인문학, 습지인문학 등이 그 예이다.¹³⁸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환경인문학은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류세의 기후·생태 위기에 대한 인문학의 대응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생성 중인 비교적 새로운 연구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의 명칭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또 새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¹³⁹ 또한 환경인문학에

136 머천트(2022), pp. 5, 53-220.

137 Hubbell and Ryan (2022), pp. 19-249.

138 Hubbell and Ryan (2022), pp. 253-265.

139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환경인문학이나 생태인문학 이외에도 “인류세 인문학”(Anthropocene Humanities)(Holm, Braidotti, Iovino and Oppermann), “지속 가능한 인문학”(sustainable humanities)(Braidotti, LeMenager and Foote),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으로서의 환경인문학”(Neimanis et al.) 등이 있으며, 한 명의 학자가 여러 개의 명칭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LeMenager and Foote (2012), “The Sustainable Humanities”,

서는 사회과학, 자연과학과의 학제적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학문 외부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 시민사회와의 협업과 소통 역시 핵심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새로운 연구 주제나 세부 분야, 연구의 방법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겨나리라 예상된다. 이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지혜를 모아 인류세의 기후·생태 위기가 가지는 문제성과 규모, 긴급성의 정도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며 대응하려는 공동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다.

4.2. 국내의 사례

이 장에서는 국내 환경인문학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사, 환경철학, 생태비평 등은 ‘환경인문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으며, 이 연구와 학술활동이 축적되어 환경인문학이라는 개념이 추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인문학 분야에서는 한국환경철학회(1995~), 문학과환경학회(2001~), 한국생태환경사학회(2015~)를 이런 방향의 대표적인 학회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1995년에 환경사회연구회로 시작하였다가 2000년에 출범한 한국환경사회학회, 1995년에 출발한 한국환경경제학회, 2015년에 설립되어 지구법학을 연구하는 지구와사람이 지금까지 활발한 이론적·실천적 활동을 이어 오고

PMLA 127 (3), pp. 572–573; Holm et al. (2015), p. 987; Neimanis et al. (2015), p. 464; 브라이도티(2015), p. 206; Iovino and Oppermann (2017), p. 13. 포스트휴머니즘적 입장에서 인문학의 혁신을 논하는 입장에는 대표적으로 브라이도티와 카스퍼-헤네가 있는데, 그들이 명명하는 “포스트휴먼 인문학”(posthuman humanities)(Braidotti) 또는 “새로운 인문학”(new humanities)(Braidotti and Casper-Hehne)은 환경인문학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며, 환경인문학은 그 여러 예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다. 브라이도티(2015), pp. 203, 209, 234, 236; Braidotti and Casper-Hehne (2023), pp. 463–467.

있다.¹⁴⁰ 이 학회들은 국제적인 학술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별 분과학문에서의 연구 이외에도, 인문학을 통해 기후·생태 위기에 대해 성찰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인문학자들의 저술이 존재한다.¹⁴¹ 또한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인류세 담론이 확산되면서 그 전과는 다른 차원의 긴급성 속에서 개별 분과학문의 연구와 기후 위기나 인류세를 연결시키는 포괄적인 성찰들도 새로 나타났다.¹⁴²

숭실대에서는 2012년에 환경 문제를 다양한 분과학문적 시각에서 성찰할 수 있는 교과목 개발에 착수하였고, 2013년부터 8개 학과의 연구자들이 협업하여 학기를 교차하면서 ‘환경과 인문학’, ‘환경과 사회과학’이라는 교양 선택 과정 두 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환경과 인문학’은 환경과학, 환경철학, 환경신학, 환경문학으로, ‘환경과 사회과학’은 환경경제, 환경정치, 환경정책, 환경법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⁴³

140 이 밖에도 생태미학예술연구소(2013~)가 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초점에 둔 연구소로는 한신대학교 생태문명원(2022~)이, ‘생태적 지혜’에 초점을 맞춘 협동조합연구소로는 생태적지혜연구소(2019~)가 있다.

141 송상용 외(1999),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서울: 나남;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엮음(2001), 『인문학과 생태학: 생태학의 윤리적이고 미학적인 모색』, 서울: 백의; 김치수·송기정·김명숙·최은희(2002), 「생태주의 인문학」, 『기호학 연구』 11, 한국기호학회, pp. 245-310; 박정호(2009), 「생태 인문학 연구를 위한 제언」, 『인간·환경·미래』 2,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pp. 139-165; 한윤정(2020), pp. 151-164; 이정철·임철희(2022), 「기후변화 시대 인문학의 응답과 역할: 철학, 종교,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3(4), 한국기후변화학회, pp. 447-457.

142 신두호(2015), 「인류세와 문학연구의 과제」, 『문학과 환경』 14(3), 문학과환경학회, pp. 89-113; 신두호(2016), 「환상에서 현실로: 인류세, 기후변화, 문학적 수용의 과제」, 『인문과학』 60,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 67-102; 고태우(2020), 「총론: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환경사 — 한국 기후사의 모색」, 『역사와 현실』 118, 한국역사연구회, pp. 35-54; 고태우(2025), 「한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 생태환경사」, 『생태환경과 역사』 14, 한국생태환경사학회, pp. 255-316; 노희정(2023), 「기후변화시대의 환경미학」, 『윤리교육연구』 67, 한국윤리교육학회, pp. 469-491; 이혜원(2021), 「생태미학의 가능성과 시적 적용의 문제」, 『돈암어문학』 40, 돈암어문학회, pp. 97-131.

143 차봉준(2016), 「환경 인문학 담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연구: S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서울대 환경인문학 리딩 그룹, 부산대 트랜스퍼시픽 환경인문학 연구 그룹 등이 활동하고 있다. 202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서울대 환경인문학 리딩 그룹은 2025년에 제1회 환경인문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에 시작된 부산대 트랜스퍼시픽 환경인문학 연구 그룹은 2026년에 트랜스퍼시픽 환경인문학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4.3. 독일어권의 몇 가지 사례들

4.3.1.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대학교와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

여기서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대학교(University of Augsburg)의 환경인문학과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University of Fribourg)의 예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대학교는 독일어권에서는 최초로 2015년에 미국 학을 중심으로 환경인문학의 학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문화생태학, 물질생태학, 정치생태학의 삼중 구조¹⁴⁴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환경사, 철학, 사회학, 신학, 경제학,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환경윤리 등이 추가된다. 환경인문학이라는 프레임워크 안의 교류를 통해 이러한 여러 학문들이 점점 더 확장되고 심화하며, 뮌헨의 레이첼 카슨 환경 및 사회 센터(Rachel Carson Center for Environment and Society), 프라이부

『문학과 환경』 15(3), 문학과환경학회, p. 208. 세부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이 논문을 참조할 것.

144 Schmidt et al. (2020), p. 226: “문화생태학은 문학적 및 문화 이론적 접근법으로, 문화와 자연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다루고, 문화적·문학적 창조성의 과정과 그 산물을 이러한 상호관계의 변형으로 분석한다. [...] 물질생태학은 물질의 역사들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들과 그들의 물질적·생태적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이산화탄소, DDT, 질소, 커피, 흙, 알루미늄, 우유, 목재, 희토류, 인 등과 같은 특정 물질들의 사회사적 이력을 추적하여 조사한다. [...] 정치생태학은 환경 변화와 정치적 과정 사이의 연결 관계, 자원 사용과 환경 악화를 둘러싼 갈등을 분석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지를 참조할 것. Schmidt and Zapf (2021), pp. 10-13.

르크 대학교 및 코트부스 대학교(독일), 베른 대학교(스위스), 탈린 대학교(에스토니아)의 환경인문학과 같은 다른 환경 중심 센터들과 협력하여 지역적·국가적 범위에서, 그리고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¹⁴⁵

아우크스부르크 대학교에는 2026년 현재 글로벌 환경사와 환경인문학 전공 교수가 있으며, 국제적 환경인문학 박사과정 “환경을 다시 생각하기”(Rethinking the Environment), 그리고 환경인문학 인증서 과정이 있다.¹⁴⁶

2019년에 설립된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의 환경과학·환경인문학 연구소(University of Fribourg Environmental Sciences and Humanities Institute)는 프리부르 대학교의 모든 단과대학, 즉 수학·과학 및 의과대학, 철학대학, 경제 및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신학대학이 지원하며 전체적으로는 환경인문학이 이끌고 조율하는 학제적 연구소로, 환경학, 환경법, 응용환경경영부전공, 환경학 및 환경인문학 석사과정과 환경인문학 박사과정을 제공한다.

4.3.2. 스위스 환경 연구 및 생태학 학회 위킹 그룹의 예

흥미로운 것은 스위스 환경 연구 및 생태학 학회(saguf, Schweizerische Akademische Gesellschaft für Umweltforschung und Ökologie)의 예이다. 이 학회에 소속된 몇몇 학자들은 스위스에서 환경인문학을 시작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몇 편의 논문을 공동 집필하여 출간하였다.¹⁴⁷ 이 논문들

¹⁴⁵ Schmidt et al. (2020), p. 226.

¹⁴⁶ Environmental Humanities at the University of Augsburg, 2026.6.11, <https://www.uni-augsburg.de/en/forschung/einrichtungen/institute/wzu/research-fields/environmental-humanities/environmental-humanities-at-the-university-of-augsburg/>

¹⁴⁷ Philippe Forêt, Marcus Hall and Christoph Kueffer (2014), “Developing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A Swiss Perspective”, *GAIA* 23 (1), pp. 67–69; Marcus Hall et al. (2015), “Seeing the Environment through the Humanities: A New Window on Grand Societal Challenge”, *GAIA* 25 (2), pp. 134–136; Christoph Kueffer et al. (2018), “Applying

을 통해 saguf가 스위스에 환경인문학을 시작하고 정립한 경험으로부터 참조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시작 단계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 첫 번째, 두 번째 논문인 「환경인문학을 발전시키기」(2014)와 「인문학을 통해 환경을 바라보기」(2015)에서 그들은 환경인문학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환경인문학의 필요성, 핵심 주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협력 방법, 스위스 환경인문학의 현황 등에 대해 논하고 열 가지 제안을 담는다. 세 번째 논문인 「환경인문학을 응용하기」(2018)에서는 스위스에서 환경인문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게 된 구체적 경험과 인식을 요약한다. 여기에는 과학과 사회의 연결 지점에서 논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전략들, 기존 학문 시스템에 환경인문학의 관점을 통합하기, 학자와 예술가, 시민들이 상호작용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지식 생산의 방법을 모색하는 트랜스학문적이고 상호매체적인 실험들, 교육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 등이 포함된다. 2014년부터 2025년 사이의 스위스 환경인문학을 회고하는 논문(「스위스 환경인문학: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2025)에서 그들은 학술대회, 대중강연, 논문, 저술,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활동과 예술 행사 등을 통해 환경인문학이 스위스에서 확산되고 강화된 과정을 서술한다. 또한 saguf 워킹 그룹을 통해 장크트 갈렌 대학교(University of Sankt Gallen)의 교수직과 프랭클린 스위스 대학교의 지속가능성과 전환(MA in Sustainability and Transformation) 석사 프로그램이 생겨났다는 것도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의 초점은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10년 동안의 작업을 돌아보면서 저자들은 현재의 기후·생태 위기라는 난제에 대한 폭넓은 지적 교류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확신하며, 자신들의 비전이 “인문학자, 과학자, 예술가, 활동가, 실무자, 시민의 역량과 감수성을 다양한 문화와 지식 체계 속에서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GAIA* 27 (2), pp. 254-256; Christoph Kueffer et al. (2025), “Environmental Humanities Switzerland: a decade in retrospect”, *GAIA* 34 (4), pp. 298-300.

결합할 새로운 세대의 학자들을 양성하는 것”¹⁴⁸이라고 밝힌다.

4.4. 제언과 전망

핵심적인 것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환경인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과 이 새로운 연구 분야의 제도화이다. 인류세, 기후·생태 위기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은 이미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필요와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향의 연구와 교육이 더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려면 환경인문학이라는 학제적 장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야 산발적인 노력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더 의식적이고 집중적·지속적으로 기후·생태 위기에 학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 내부의 학제적 협력뿐 아니라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른 학문 분야와의 협력, 대학 사이의 협력, 대학과 시민사회, 학자와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와 사람들 사이의 더 활발한 대화와 공동의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기후돌봄을 위한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기후·생태 위기 대응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⁴⁹ 이와 동시에 트랜스내셔널하고 트랜스로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세계와 소통하고 세계를 향해 열려 있으면서도 한국 사회, 그리고 각 지역의 고유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 필요성에 바탕을 둔 기후·생태 위기 대응 및 환경인문학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인문학 관련 학위과정을 신설하여 인문학적 관점

148 Kueffer et al. (2025), p. 300.

149 한신대 생태문명원 기획, 우석영 엮음(2024), 『기후돌봄: 거친 파도를 다 같이 넘어가는 법』, 서울: 산현글방, pp. 60, 94-119.

의 기후·생태 위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지속적인 환경인문학을 위해 핵심적인 중요성을 띤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빠른 진행을 고려할 때 방향 전환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즉 느리면서도 빠르게라는 투 트랙,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이 모든 일들은 기존의 제도 안과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실험과 창발, 뜻밖의 접속과 연결, 새로운 배치를 통해, 예기치 않은 발견의 기쁨과 함께 일어날 것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5. 마치며

인류세의 기후·생태 위기, 또한 복합위기라는 인류 공동의 난제 앞에서, “새로운 인간 조건” 아래 등장하게 된 환경인문학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기존 학문에 하나의 분야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로즈와 로빈은 이를 “지식의 직물을 다시 짜기”(re-threading the fabric of knowledge)¹⁵⁰라고 불렀고, 에미트와 나이는 “근본적인 방향 재설정”(a fundamental reorientation)¹⁵¹ 또는 “지식의 재구성”(reconstructing knowledge)¹⁵²이라고 보았다. 코언과 푸트는 유사한 문제의식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분야의 기본 방향은 탐구적(interrogative)이다[지식을 제공하기보다는 문제를 생성한다(problem-generating than knowledge-supplying)]”. 다시 말하면, 환경인문학은 우리가 직면한 생태적 문제들에 대

150 Rose and Robin (2001).

151 Emmett and Nye (2017), p. 176.

152 Emmett and Nye (2017), p. 163.

한 쉬운 해답을 제공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뒤흔드는(unsettle) 경향이 있다.”¹⁵³ 홀 등은 “환경인문학은 지구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우리 자신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프레임한다(reframe)”¹⁵⁴고 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와 “환경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통합이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리라는 사실보다 우리가 배우고 공유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리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¹⁵⁵ 니마니스 등 또한 환경인문학을 “지식의 새로운 배열”(a new configuration of knowledge)¹⁵⁶이라고 본 나이 등을 인용하면서, 환경인문학은 인간(문화)과 환경(자연)의 관계를 재상상해야 할 뿐 아니라, 인문학을 재상상하기 위해 자기성찰적 참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¹⁵⁷ 즉 인류가 아직 살아 보지 않은 조건 속에 살게 되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아직 가 보지 않은 사유와 실천의 길을 가고 상상하기 어려운 것을 상상하기 위하여 환경인문학에서는 기존 지식의 재사유(rethinking),¹⁵⁸ 재논의(revisiting),¹⁵⁹ 재상상(re-imagining),¹⁶⁰ 재정의

153 Cohen and Foote (2021), p. 5.

154 Hall et al. (2015), p. 136: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fundamentally reframe how we understand our role in changing the face of the earth.”

155 Hall et al. (2015), p. 136.

156 Neimanis et al. (2015), p. 72; Nye et al. (2013), p. 7.

157 Neimanis et al. (2015), p. 70.

158 Rose et al. (2012), pp. 2-3.

159 Cohen and Foote (2021), p. 2.

160 Rose et al. (2012), p. 3. 셰퍼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다시 빚어내는 것”(reshape our image of man)이라고 보았다. Paul Shepard (1973), *The Tender Carnivore and the Sacred Game*,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p. xxvi [Rose (2015), p. 2에서 재인용]. 더 나아가 데보라 로즈 버드는 플럼우드르를 인용하면서 핵심 요점은 “인간에 대해 상상하고, 인간으로 존재하고, 인간이 되어 가는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the need for new ways of imagining, being and becoming human)이라고 하였다. Rose (2015), p. 1.

(redefining),¹⁶¹ 재배치(rearraging), 재구성 또는 다르게 제시하기(recasting),¹⁶² 재조직화(reorganization),¹⁶³ 다시 프레이밍하기(reframing)¹⁶⁴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기(re-storying)¹⁶⁵ 등이 요청되며,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인문학”(a Humanities to come)에 대해 스피박이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인문학 교육이 가능하게 하리라고 본 “비강제적인 욕망의 재배치”(uncoercive rearrangement of desire)에도 작용할 것이다.¹⁶⁶ 또한 환경인문학에서는 번역과 전달의 작업, 즉 학문 사이의 번역 및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이 필수적이다.¹⁶⁷ 역시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지적하였듯이 이 번역과 소통의 방식 역시 새로 상상하고 실험하며 발견 또는 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⁶⁸

환경인문학은 “느린 희망”(Christof Mauch), “비판적 희망”(Kari Grain) 또는 “희망 없는 낙관주의”(Tommy Wieringa)의 인문학이 될 수 있을까? 10년 후에 우리는 어떤 회고를 하게 될까? 스위스 saguf 워킹 그룹처럼, 10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한국 사회에 환경인문학을 좀 더 확산하고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게 될까? 또 20년, 30

161 Braidotti and Casper-Hehne (2023), p. 464.

162 Forêt et al. (2014), p. 68.

163 Hubbell and Ryan (2022), p. ix. 허벨과 라이언은 환경인문학이 “지식의 급진적 재조직화”(the radical reorientation of knowledge)의 산물이자 행위주체라고 보았다.

164 Hall et al. (2015), p. 136.

165 Hutchings (2014), p. 214. 허칭스는 생태주의와 환경과 관련하여 세상을 “다시 생각하기”(re-thinking), “다시 상상하기”(re-imagining), “다시 이야기하기”(re-storying)를 환경인문학의 세 가지 측면 가운데 하나인 “환경을 통해 생각하기”와 관련된 세 가지로 바라본다.

166 Gayatri Chakravorty Spivak, “Righting Wrongs”,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103 (2-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 526. 스피박의 “다가올 인문학”에 대한 논의는 다음 논저를 참조할 것. DeLoughrey et al. (2015), p. 8.

167 Bergthaller et al. (2014), p. 273.

168 Bergthaller et al. (2014), p. 273: “따라서, 우리가 대화의 새로운 형식들, 협력적인 연구의 새로운 종류들, 소통의 새로운 채널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노력의 결과를 펴뜨리는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년 후에 우리는 어떤 회고를 하게 될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가고 있을까? 우리는 점차 호모 파베르(homo faber)에서 호모 레플렉투스(homo reflectus)¹⁶⁹로, 근대인에서 지구생활자로, 지구는 좀 더 거주가능한 곳으로 바뀌어 가고 있을까? 인류세의 기이한 시간성, 이 “깨어진 시간”(tiempo roto, Alberto Moreiras) 속에서, 생태슬픔과 “전환의 축복”,¹⁷⁰ 다가오는 티핑 포인트와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사회적 티핑 포인트, 인류세의 어둠과 탈인류세의 기쁨이 교차하는 이 기이한 시간에… “지구는 인문학을 필요로 한다.”¹⁷¹

참고문헌

논저

-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엮음(2001), 『인문학과 생태학: 생태학의 윤리적이고 미학적인 모색』, 서울: 백의.
- 고태우(2025), 「한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 생태환경사」, 『생태환경과 역사』 14, 한국생태환경사학회, pp. 255-316.
- 고태우(2020), 「총론: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환경사 — 한국 기후사의 모색」, 『역사와 현실』 118, 한국역사연구회, pp. 35-54.
- 그레타 툰베리 외(2023), 이순희 옮김, 『기후 책』, 파주: 김영사.
- 김옥동(2021), 『환경인문학과 인류의 미래』, 파주: 나남출판.
- 김치수·송기정·김명숙·최은희(2002), 「생태주의 인문학」, 『기호학 연구』 11, 한국기호학회, pp. 245-310.
- 김홍중(2025), 『가까스로-있음: 브뤼노 라투르와 파국의 존재론』, 서울: 이음.
- 노희정(2023), 「기후변화시대의 환경미학」, 『윤리교육연구』 67, 한국윤리교육학회, pp.

169 이 용어들은 발 플럼우드의 다음 글에 나온다. Val Plumwood (2007), “Review of Deborah Bird Rose’s ‘Reports from a Wild Country: Ethics for Decolonisation’”, *Australian Humanities Review* 42, p. 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도 참조할 것. Rose (2015), pp. 1-2.

170 이나경(2026), “생태슬픔이란 무엇인가”,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기획, 『생태슬픔』, 서울: 모시는사람들, p. 48.

171 LeMenager and Foote (2012), p. 575; Iovino and Oppermann (2017), p. 7.

469-491.

도나 해러웨이 (2021), 최유미 옮김, 『트러블과 함께 하기』, 파주: 마농지.

디페시 차크라바르티(2010), 김용우 옮김, 「역사의 기후: 네 가지 테제」, 조지형·김용우 엮음, 『지구사의 도전: 어떻게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설 것인가』, 서울: 서해문집, pp. 308-386.

로지 브라이도티(2015), 이경란 옮김, 『포스트휴먼』, 파주: 아가넷.

롭 너슨(2020), 김홍옥 옮김,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서울: 에코리브르.

박정호(2009), 「생태 인문학 연구를 위한 제언」, 『인간·환경·미래』 2,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pp. 139-165.

송상용 외(1999),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서울: 나남.

신두호(2016), 「환상에서 현실로: 인류세, 기후변화, 문학적 수용의 과제」, 『인문과학』 60,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 67-102.

신두호(2015), 「인류세와 문학연구의 과제」, 『문학과 환경』 14(3), 문학과환경학회, pp. 89-113.

유기쁨(2022), 「발 플럼우드의 철학적 애니메이션 연구: 장소에 기반한 유물론적 영성 개념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42, 한국종교문화연구소, pp. 319-350.

이나경(2026), “생태슬픔이란 무엇인가”,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기획, 『생태슬픔』, 서울: 모시는사람들, pp. 21-49.

이정철·임철희(2022), 「기후변화 시대 인문학의 응답과 역할: 철학, 종교,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3(4), 한국기후변화학회, pp. 447-457.

이혜원(2021), 「생태미학의 가능성과 시적 적용의 문제」, 『돈암어문학』 40, 돈암어문학회, pp. 97-131.

조너선 사프란 포어(2020), 송은주 옮김, 『우리가 날씨다: 아침식사로 지구 구하기』, 서울: 민음사.

조 향(2024), 「왜 인류세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엮음,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를 말하다』,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pp. 299-314.

조효제(2025), 『불타는 지구에서 다르게 살 용기: 새로운 전환의 서사를 위하여』, 파주: 창비.

조효제(2020), 『탄소 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파주: 21세기북스.

줄리아 애드니 토머스·마크 윌리엄스·안 잘라시에비치(2024), 박범순·김용진 옮김, 『인류세 책: 행성적 위기의 다면적 시선』, 서울: 이음.

차봉준(2016), 「환경 인문학 담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연구: S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15(3), 문학과환경학회, pp. 197-222.

캐럴린 머천트(2022), 우석영 옮김, 『인류세의 인문학: 기후변화 시대에서 지속가능성의 시대로』, 서울: 동아시아.

한신대 생태문명원 기획, 우석영 엮음(2024), 『기후돌봄: 거친 파도를 다 같이 넘어가는 법』, 서울: 산현글방.

- 한윤정(2020), 「생태문명을 위한 환경인문학의 역할」, 앤드루 슈왈츠 외, 한윤정 엮고 옮김, 『생태문명 선언: 위기, 희망, 지속가능한 미래』, 서울: 다른백년, pp. 151-164.
- Adamson, Joni (2016), "Humanities", *Keywords for Environmental Studies* (ed. by William A. Gleason and David N. Pellow),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135-139.
- Andersen, Gregers and Stefan Gaarsmand Jacobsen (2020), "The Urgency of a New Humanities", *The Anthropocenic Turn*, New York (ed. by Gabriele Dürbeck and Philip Hüpkens), NY: Oxon: Routledge, pp. 173-189.
- Bergthaller, Hannes and Peter Mortensen (eds.) (2018), *Framing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Leiden: Brill; Boston: Rodopi.
- Bergthaller, Hannes et al. (2014), "Mapping Common Ground: Ecocriticism, Environmental History and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Environmental Humanities* 5, pp. 161-176.
- Biswas, Debajyoti and John C. Ryan (eds.) (2025), *Environmental Humanities in India*, Singapore: Springer Nature.
- Braidotti, Rosi and Hiltraud Casper-Hehne (2023), "New Humanities", *Handbook of the Anthropocene: Humans between Heritage and Future* (ed. by Nathanaël Wallenhorst and Christoph Wulf), Cham: Springer Nature, pp. 463-468.
- Braidotti, Rosi (2013), *The Posthuman*, Cambridge: Polity Press.
- Braidotti, Rosi, Kum Kum Bhavnani, Poul Holm and Ping-chen Hsiung (2013), "The Humanities and Changing Global Environments", *Changing Global Environments. World Social Science Report*, Paris: ISSC, UNESCO, pp. 506-507, 2026.6.8.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24677>
- Chang, Chia-ju (2019), *Chinese Environmental Humanities: Practices of Environing at the Margins*,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 Choné, Aurélie, Tim Freytag, Philippe Hamman and Evi Zemanek (2019), "Environmental Humanities: Wissenstransfer und Wissenserneuerung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 Einleitung", *Revue d'Allemagne et des pays de langue allemande* 51 (2), pp. 275-283.
- Cohen, Jeffrey Jerome and Stephanie Foote (eds.) (2021), *The Cambridge Companion to Environmental Humanities*, Cambridg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Loughrey, Elizabeth, Jill Didur and Anthony Carrigan (eds.) (2015), *Global Ecologies and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Postcolonial Approaches*, New York, NY: Abibgdon, Oxon: Routledge.
- Emmett, Robert S. and David E. Nye (2017),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A Critical Introduction*, Cambridge, MA: MIT Press.
- Forêt, Philippe, Marcus Hall, Christoph Kueffer and Caroline Wiedmer (2018), "Applying

-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GAIA* 27 (2), pp. 254-256.
- Forêt, Philippe, Marcus Hall and Christoph Kueffer (2014), "Developing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A Swiss Perspective", *GAIA* 23 (1), pp. 67-69.
- Hall, Marcus et al. (2015), "Seeing the Environment through the Humanities: A New Window on Grand Societal Challenge", *GAIA* 25 (2), pp. 134-136.
- Heise, Ursula K. (2017), "Introduction: Planet, species, justice — and the stories we tell about them", *The Routledge Companion to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ed. by Ursula K. Heise, Jon Christensen and Michelle Niemann), Abingdon, Oxon; New York, NY: Routledge, pp. 1-10.
- Heise, Ursula K. (2016),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and the Futures of the Human", *New German Critique* 128, pp. 21-31.
- Holm, Poul et al. (2015), "Humanities for the Environment — A Manifesto for Research and Action", *Humanities* 4 (4), pp. 977-992.
- Hubbell, J. Andrew and John C. Ryan (2022), *Introduction to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Abingdon, Oxon/New York, NY: Routledge.
- Hutchings, Rich (2014), "Understanding of and Vision for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Environmental Humanities* 4, pp. 213-220.
- Iovino, Serenella and Serpil Oppermann (eds.) (2017), *Environmental Humanities: Voices from the Anthropocene*, London; New York: Rowman and Littlefield International.
- Jarzębowska, Gabriela, Aleksandra Ross and Krzysztof Skonieczny (eds.) (2025), *Non-Western Approaches in Environmental Humanities*, Göttingen: V&R unipress.
- Kueffer, Christoph et al. (2025), "Environmental Humanities Switzerland — a decade in retrospect", *GAIA* 34 (4), pp. 298-300.
- Kueffer, Christoph, K. Thelen Lässer and M. Hall. (2018), *Applying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Ten steps for action and implementation*, Bern: Swiss Academ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LeMenager, Stephanie and Stephanie Foote (2012), "The Sustainable Humanities", *PMLA* 127 (3), pp. 272-278.
- Neimanis, Astrida, Cecilia Åsberg and Johan Hedrén (2015), "Four Problems, Four Directions for Environmental Humanities: Toward Critical Posthumanities for the Anthropocene", *Ethics and the Environment* 20 (1), pp. 67-97.
- Nixon, Rob (2011), *Slow Violence and the Environmentalism of the Poor*,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Nye, David E., Linda Rugg, James Fleming and Robert Emmett (2013), *The Emergence of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Mistra, 2025.11.2. <http://www.mistra.org/en/mistra/publications/other-publications/background-paper---the-emergence-of-the-environmental-humanities.html>
- O’Gorman, Emily et al. (2019), "Teaching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International

- Perspectives and Practices”, *Environmental Humanities* 11 (2), pp. 427–460.
- Plumwood, Val (2007), “Review of Deborah Bird Rose’s ‘Reports from a Wild Country: Ethics for Decolonisation’”, *Australian Humanities Review* 42, pp. 1–4, 2026.6.19, <https://australianhumanitiesreview.org/2007/08/01/a-review-of-deborah-bird-roses-reports-from-a-wild-country-ethics-for-decolonisation/>
- Plumwood, Val (2002): *Environmental Culture: The ecological crisis of reason*, London; New York: Routledge.
- Rigby, Catherine (2019), “Weaving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Australian strands, configurations, and provocations”, *Green Letters* 23 (1), pp. 5–18.
- Robin, Libby (2018), “Environmental Humanities and Climate Change: Understanding Humans Geologically and Other Life Forms Ethically”, *WIREs Climate Change* 9 (1), pp. 1–18.
- Rose, Deborah Bird (2015), “The Ecological Humanities”, *Manifesto for Living in the Anthropocene* (ed. by Katherine Gibson, Deborah Bird Rose and Ruth Fincher), Brooklyn, NY: Punktum Books, pp. 1–5.
- Rose, Deborah Bird et al. (2012), “Thinking Through the Environment, Unsettling the Humanities”, *Environmental Humanities* 1 (1), pp. 1–5.
- Rose, Deborah Bird and Libby Robin (2004),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in Action: An Invitation”, *Australian Humanities Reviews*, pp. 31–32.
- Rose, Deborah Bird and Libby Robin (2001), “A Manifesto for the Ecological Humanities”, 2026.7.4. <https://fennerschool-associated.anu.edu.au/ecologicalhumanities/manifesto.php>
- Schmidt, Matthias und Hubert Zapf (eds.) (2021), *Environmental Humanities: Beiträge zur geistes- und sozialwissenschaftlichen Umweltforschung*, Göttingen: V&R Unipress.
- Schmidt, Matthias, Jens Soentgen and Hubert Zapf (2020), “Environmental humanities: an emerging field of transdisciplinary research”, *GAIA* 29 (4), pp. 225–229.
- Sörlin, Sverker (2012), “Environmental Humanities: Why Should Biologists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 Take the Humanities Seriously?”, *BioScience* 62 (9), pp. 788–789.
- Spivak, Gayatri Chakravorty, “Righting Wrongs”,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103 (2/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523–581.
- Wilke, Sabine (2015), “Environmental Humanities”, *Ecocriticism: Eine Einführung* (ed. by Gabriele Dürbeck and Urte Stobbe), Köln: Böhlau, pp. 94–106.

ABSTRACT

What Are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Jo, Hyang*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their brief history, key issues, and several exemplary cases. It focuses on core questions such as what challenges the humanities are facing amidst the ecological and climate crisis of the Anthropocene, why we need a concept such as ‘environmental humanities’ and what the humanities can do to help in dealing with this crisis. Although related fields such as environmental philosophy,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history, and ecocriticism remain marginal in Korea, they have been researched, established, and disseminated ov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Presently, when the need for a concept capable of encompassing these various streams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being raised,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sive research, exchanges, and forms of institutionalization that have taken place and are developing under the banner of ‘environmental humanities,’ with the aim of further expanding and deepening these streams.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emerged in the late 1990s or early 2000s, and are now spreading globally, but they have ‘old roots’ in the humanistic reflection on ecological problems. Emerging in response to the deepening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ecological and climate crises and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have taken various forms across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following distinct historical trajectories. Inter- and transdisciplinarity, the crossing of boundaries, loose connections and a spirit of experimentation, meta-disciplinarity, and a focus on intervention and participation are among their core characteristics.

Above all,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are called upon to humanize scientific aspects of the ecological and climate crisis, and to decenter humanity. Several key issues in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include tensions between tradition and change, continuity and novelty, disciplinarity and inter- and transdisciplinarity, humanization and dehumanization, constructive and critical thinking, the urgency of the ecological and climate crisis and 'slow scholarship,' 'ecological' and 'social' dimensions, whilst also raising the challenge of moving beyond Western-centric views to develop a regional and context-specific line of inquiry.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which have emerged out of the 'new human condition' of the Anthropocene, call for the rethinking, reimagining, redefining, rearranging, reconfiguration, and re-storying of long-established knowledge, while also necessitating new ways of knowledge transfer, communication, and education. Amidst various tensions, contradictions, and diversities,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are expected to play an indispensable and increasingly important role through their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social and natural sciences, focusing on the social and human dimensions of the ecological and climate crises.

Keywords Environmental Humanities, Anthropocene, Interdisciplinarity, Transdisciplinarity, New Human Condition, Rethinking